

로마서 8 장

8:1-8:17 절은 5:12-5:21 절(구원의 확신)의

8:18-8:39 절은 5:1-5:11 절(미래의 영광의 확신)의 부연 설명입니다

8:1-8: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25 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들이지만 8:1 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en Christou Iesou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함 katakrima:죄인임을 선포하고 그에 댓가를 치러야 함을 내포함

*생명의 성령의 법: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 속의 참된 정신을
알고 따를 때는 생명과 평안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2:29

*죄와 사망의 법:율법을 육신의 생각으로 지킬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된다(이하 8:3-8 에서 부연 설명)

8:3-8:4.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이
원래 율법을 주실 때 부터의 계획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요구 사항이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en homiomati sarkos hamartias=인간의
몸을 입어 오셨지만 죄가 없다는 의미 고후 5:21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Marcion: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의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Doceticism

*육신에 죄를 정하사=육신에 죄를 벌하사 3:25

*고후 5:21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교:7: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제명 7:14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의 요구:

1)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 6:23,
2)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13:8-10

*Luther: 이것은 마치 아픈 사람이 와인을 마시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럴 때 의사가 “당신이 와인을 마신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럴 때 의사가 와인에 대하여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음을 탓하는 것이다. 환자가 필요한 약을 먹어서 병이 낫고 나면 와인을 마실 수도 있는 것이다.

8:5-8:8.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육신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사망, 하나님과 원수,
육신에 있는 자=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영을 따르는 자=영의 일을 생각, 영의 생각=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죽을 몸도 살리신다 8:9-11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 Moo.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냐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성향 Dunn 어느 쪽을 택할 것 인가는 아래를 보면 분명하다

*육신을 따르는 자 hoi kata sarka 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 죄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평안:5:1-2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8:9-8:11. 만일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을 따르는 자 hoi kata pneuma 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들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

*요일 3: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고: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비교:pneuma 영, 성령:pneuma hagiosynes 성결의 영(롬 1:4) pneuma theou 하나님의 영, pneuma Christou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살리신 이의 영, 그의 영 등의 용어를 동등하게 구별없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삼위일체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8:12-8:17 절에서 8:9 절을 부연 설명하고

8:18-8:30 절에서는 8:10-11 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8:12-8:13.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7:6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8:9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육신에 대하여(이 세상의 삶) 해방이 되었으나 already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이 세상에 있는 죄로 부터의 영향) 마음은 남아 있기 때문에 not yet 그것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

*몸의 행실: 고전 6:9-10 절에 있는 나쁜 행실을 버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롬 13:13 절에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8:2-13 절에 있는 내용과 갈 5:13-24 절에 있는 내용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으로 같은 가르침입니다 갈 5:19-21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갈 5:22-23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나타나는 것=성령의 열매

*반드시 죽을 것은 죄의 삯으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

8:14-8:17.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비교: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호 2: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롬 9: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성령을 받아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롬 8:19

*종의 영: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일때 모든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런 마음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묘사함

*비교: 갈 4:6-7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빠 아버지 Abba ho pater 막 14:36, 비교: 주기도문 눅 11:2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8:29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 already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마지막 때에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not yet

8:17b-8:18.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단 7:21-27 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구원 받을 자들에게 고난이 먼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전 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영광)

*고후 4: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생각하건대 logizomai=reckoned 여긴다, 분명하게 확신한다

*빌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의 고난은 기독교인이 됨으로 받는 탄압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각종 질병, 배고픔, 가난, 사육 등을 포함한다 Moo

8:19-8:22.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ktisis=creation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

*고대하는 바는: 목을 빼어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들=하나님의 자녀들=구원받은 christian 들이 영광의

몸을 얻은 모습: 고전 15:44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빌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창 3:17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전 15:27 시 8:6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인간이 하나님으로 부터 떨어져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피조물들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원래의 죄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8:23-8:25.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aparchen tou pneumatos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갈 5:22)를 맺는 것을 앞으로 있을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에 대한 첫 열매로 설명하고 있다.

*비교: 고후 1:22, 5:5에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을 보증 arrabon (deposit)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

*비교:고전 15:20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aparche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될 것 hyiothesia=adoption 양자를 삼아 가문의 상속자가 되게 함

*몸의 속량 apolytrosis tou somatos 고전 15:42-53 절 참조

고후 5:2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반복되는 주제로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already", but "not yet"

*고후 4: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롬 5:1-5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 환란 인내 연단 소망

8:26-8: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Dunn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육신에 속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다.

*Luther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사인이다. 우리가 기도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사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은 우리의 그것들 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Cranfield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

*마음을 아시는 이=하나님 만이 사람의 마음 아신다 *삼상 16:7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 139:1-2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말할 수 없는 alaaletois: unspoken/ineffable 비교:고후 12: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arreta rhemata =unspeakable words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8:33 절의 내용을 재판정으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의미

*모든 것이 협력하여 panta synergei :1)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하여,
2)성령이 함께 하시어 도우심으로

*선 agathos 여기서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육신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소망을 든든히 하여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인 완성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8:29-8: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셨으니를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정해
놓았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predestination theology 로 Augustin 과
Calvin 에 의하여 설명되어진 오래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Augustin vs Pelagius, Calvinism vs Arminism

*여기서 미리 아신 것은 타락하게 될 인간의 본성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의미이고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으로 그런
인간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영광을 나누어
주려는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의미이다 Moo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롭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의미 not yet

8:31-8:32.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

*내주신 paredoken 비교:1:24,26,28, 4:25 내버려 두사 paradidomi

*주시지 charisetai=은혜로 거저 주신다

*이 모든 확신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사실=기독교의 참신앙: 참조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8:3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8:33-8:34.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심판관이시고 그 옆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변호인으로 계시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으며 설령 고발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겠느냐는 의미로 설명

*하나님 우편:시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베전 2:1-2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8:35-8:37.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시 44: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록된 어려움들을 peristasis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적고 있다 비교:고후 11:26-27, 12:10

*시 44 편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고라 자손 마스길의 기도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

8:38-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순교자의 상황을 생각하면 죽든지 살든지의 의미

*고전 3:22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천사들 angeloi, 권세자들 archai=영적인 세력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archas 권세들과 exousias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kosmokratoras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골 2:15 통치자와 archas 권세들을 exousias 무력화하여

*현재일, 장래 일=시간을 초월하여

*높음, 깊음=우주 공간과 이 땅의 모든 것 즉 공간을 초월하여

*엡 3:18(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시

proginosko:forekwow 미리 아신다

먼저 알고 있다:행 26:5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벧후 3:17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전부터 관계를 맺었다:롬 11: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벧전 1: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전에 정하셨다: 행 2:23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